

세계 최고의 교육체제 이탈리아 '레지오 에밀리아'

## 시 예산 12% 유아교육투자 '열매'

지난 91년 10월2일 미국의 <뉴스위크>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유아교육체제로 이탈리아의 '레지오 에밀리아'를 선정했다.

이탈리아 북부의 에밀리아 로마그나 지역에 있는 인구 13만 소도시의 유아교육체제에 쏟 아진 세계의 관심은 어린이들을 위한 이곳의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 때문이었다.

3~6살 어린이를 위한 22개 유아학교와 0~3살 영유아를 위한 13개의 영유아센터에는 따로 일일계획표 등의 교육과정이 없다. 4~5명 어린이들 스스로가 짧게는 1주, 길게는 2~3년 단위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전부다. 프로젝트란 어린이들이 한가지 과제를

를 심도 있게 탐색하고 이를 그림이나 말·동작·그림자놀이·그림·조각·콜라주·음악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다.

이연섭 교수(중앙대 교육학과)는 "레지오 에밀리아의 경우 겉으로 보기에 아무 프로그램이 없는 듯 하지만 철저히 어린이들의 창의성을 개발하도록 배려된 프로그램"이라면서 "시 전체 예산의 12%를 유아교육에 투자하면서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한 데서 가능했던 일"이라고 말한다. 레지오 에밀리아 유아교육을 소개하는 책 <어린이들의 수많은 언어-레지오 에밀리아의 유아교육>(정민사)은 이달 중순 국내에서도 번역돼 나왔다.

96. 8. 31

## 호주 보육시설인준제 '좋은보육'전인

기준표따라 전국시설 3단계 평가·지속관리

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지난 94년 보육시설 서비스 질을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 '보육시설 기준인준제도'를 도입했다. 보육 시설과 교사만 갖췄다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 객관적 조건들이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만 질 높은 보육서비스가 가능하다는 발상에서였다.

전국 보육시설 인준심의위원회를 만들고 △교사와 어린이·부모의 상호작용 △프로그램 △영양·건강 △시설운영 및 교사발전 등 네가지 영역별로 52개항의 보육시설 점검 기준표를 마련해 각 보육시설을 '기본적 보육' '좋은

질의 보육' '높은 질의 보육'의 3단계로 매년 평가한다. 점검기준에는 △시설 종사자는 지도와 훈육때 긍정적인 접근을 하는가 △새로운 어린이와 부모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과정이 있는가 △배변 훈련절차는 개별적 요구에 부합하며 긍정적인 경험이 되도록 하고 있는가 △식사시간이 즐거운가 등이 포함돼 있다. 평가 후 '기본적 보육'을 제공하는 곳으로 나왔을 경우는 매년, '좋은 질'의 보육 시설로 평가됐을 때는 2년마다, '높은 질'의 보육기관으로 평가됐을 때는 3년마다 재평가를 받도록 해 계속적으로 질을 관리하고 있다.

김미경 기자